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비행의 관계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 검증

정 옥 분¹⁾ 임 정 하²⁾ 정 순 화³⁾ 조 윤 주⁴⁾

고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의 고등학교 1, 2학년 343명(남학생 164명, 여학생 179명)이며, SPSS 17.0과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를 통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극추구적 비행에서 비행친구의 중요성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비행과 비행친구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지지해준다.

주요어 : 자극추구성향, 청소년비행, 비행친구, 매개효과, 사회적 상호작용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장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교 겸임교수

4)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강사 (E-mail : yjcho4@korea.ac.kr)

I. 서론

청소년비행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외현화된 행동문제로서 일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나 이후의 사회적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Goodyer, 1992). 또한 지위비행에서 비롯된 경비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중비행으로 심화되기 쉽다(Dodge, Petti, & Bates, 1994), 다중비행으로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임은희, 서현숙,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폭력, 학대와 같은 가정환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신선인, 2008; 정익중, 2006; Baron, 2003; Cernkovich et al., 2000; Compas et al., 1989), 개인의 우울이나 분노 성향 및 정서적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김희화 2005; 이동원, 2004; 정진경 외, 2005),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환경으로서 또래영향(박현수, 2009; 이은주, 2009; Haynie & Osgood, 2005; Warr, 200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다른 발달시기와는 구별되는 청소년기만의 독특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특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청소년비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자극추구성향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자극추구성

향은 복잡하고 강렬한 경험에 대한 욕구를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려는 것이다(Zuckerman, 1971, 1994). 그러므로 신기함이나 자극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Cauffman et al., 2008; Steinberg et al., 2008). 자극추구성향은 무모한 행동을 촉발시키기 쉽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관련되어 지는 만큼(Arnett, 1996; White, Lavouvie, & Bates, 1985), 청소년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2000; Steinberg et al., 2008).

자극추구성향으로 인한 비행은 호기심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라는 시기적인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비행이다. 그만큼 자극추구적 비행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폭력 및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좌절을 완화시키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비행을 저지르기가 쉬운 반면(Bradley & Whiteside-Mansell, 1997; Peirce et al., 1994), 자극추구적인 비행은 강렬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Steinberg et al., 2008). 따라서 자극추구적 비행은 부정적인 경험과 같은 특정한 문제가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성향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자극추구성향은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동으로 대체가능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Zuckerman, 1979), 새로움과 강렬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된다면 자극추

구로 인한 비행이 사회적인 범죄로까지 심화되고 확대될 소지가 줄어들게 된다.

청소년기의 자극추구성향과 관련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또래를 들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은 생물학적인 속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Arnett, 1993), 또래는 자극추구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자극추구성향은 개인의 위험행동뿐 아니라 또래의 위험행동과도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Horvath와 Zuckerman(1993)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위험행동에 개입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통해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에 개입되어 있는 또래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극추구성향이 또래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극추구성향이 위험행동을 하는 또래에 대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은 자극추구성향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행동을 하는 또래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험이나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개인으로서보다는 또래와의 공조를 통해서 행동화되기 쉬워지며 이러한 경향은 반사회적인 행동일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Cohen & Prinstein, 2006). 즉, 또래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속성을 공유하므로 청소년들의 행동문제에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Steinberg & Monahan, 2007).

또래는 청소년들의 신념, 태도뿐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Le et al., 2005), 청소년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식, 2007; Agnew, 1991; Elliott et al., 1985). 그 중에서도 비행친구는 비행의 가능성이나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등(O'Donnell et al., 1995),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Warr, 2002), 청소년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비행친구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주목되어 왔는데(Haynie & Osgood, 2005), 이러한 입장은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횡단연구들(Agnew, 1991; Weerman & Smeenk, 2005)뿐 아니라, 종단연구들(Patterson & Dishion, 1985; Thornberry et al., 1994)을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비행이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한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학습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Warr, 2002). 이러한 인과관계를 확장하여 청소년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비행친구가 비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역도 성립한다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정기원, 2007; Thornberry, Lizotte, Krohn, Farnworth & Jang, 1994).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청소년비행이 이미 높은 비행수준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며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비행이 더욱 촉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관계가 상호호혜적이며 순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정기원, 2007; Weerman, 2004). 그러므로 상호작용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Block et al., 1988; Dishion et al., 1999). 즉, 개인적인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친구에 의해 매개되어질 수 있다(Henry et al., 2001).

이상을 통해,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극추구성향과

환경적인 요소로서 또래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위험행동을 대표하는 또래로서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의 내재적인 문제 및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Capaldi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의 매개역할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비행과 관련된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비행의 성향을 파악하고 예방 및 개입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극추구성향 및 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를 통한 매

개효과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오미경, 1997; 전덕희, 2002; Donohew et al., 2000; Hoyle et al., 2000)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O'Donnell et al., 1995; Thornberry, 1987)을 고려하고, 청소년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론(Thornberry, Lizotte, Krohn, Farnworth & Jang, 1994; Weerman, 2004)에 근거하여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의 매개역할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와의 교류는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단절되어도 비행이 감소하지 않는다(Weerman, 2004; Weerman & Smeenk, 2005).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매개변인인 비행친구의 영향을 통제하여도 자극추구성향이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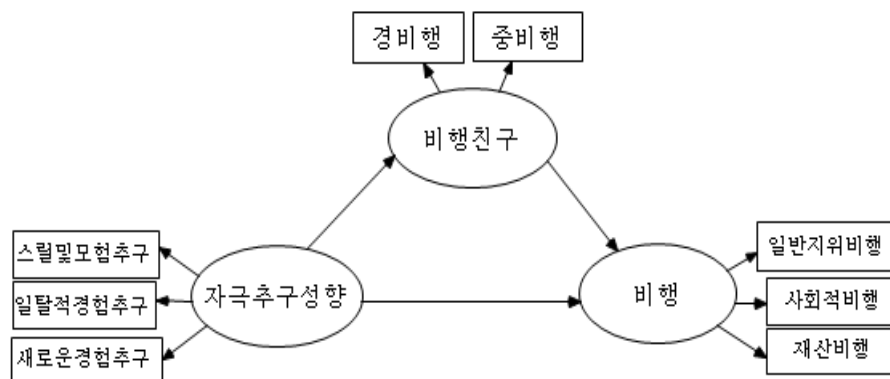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관계를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학생이 164명(47.8%), 여학생이 179명(52.2%)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자극추구성향

자극추구성향은 정옥분 등(201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극추구성향 척도는 스틸 및 모험 추구(8문항), 새로운 경험추구(6문항), 일탈적 경험추구(6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는 .84, .83, .7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가 .88로 나타났다.

비행친구

비행친구는 비행친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전체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64	47.8
	여	179	52.2
	합계	343	100
학업성적	상	53	15.5
	중상	69	20.1
	중	95	27.7
	중하	77	22.4
	하	47	13.7
	결측치	2	.6
	합계	343	100
가정생활 수준	매우 부유	3	.9
	비교적 부유	5	15.7
	보통	246	71.7
	비교적 어려움	37	10.8
	매우 어려움	2	.6
	결측치	1	.3
	합계	343	100
부교육수준	무학	1	.3
	초졸	1	.3
	중졸	7	2.0
	고졸	143	41.7
	전문대졸	12	3.5
	대졸	141	41.1
	대학원졸	30	8.7
	기타	5	1.5
	결측치	3	.9
	합계	343	100
모교육수준	초졸	2	.6
	중졸	10	2.9
	고졸	208	60.6
	전문대졸	6	1.7
	대졸	92	26.8
	대학원졸	15	4.4
	기타	8	2.3
	결측치	2	.6
	합계	343	100

은주, 2009; 정기원, 2007)의 경비행 친구와 중 비행 친구에 해당하는 지표를 사용하여 친한 친구의 수에서 각각의 비행 행동에 해당하는 친구의 비율을 구하였다. ‘친한 친구들 중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친한 친구들 중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친한 친구들 중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의 합을 경비행 친구로, ‘친한 친구들 중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친한 친구들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친한 친구들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의 합을 중비행 친구로 명명하였다. 비행친구에 대한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는 경비행친구인 경우에 .82로 나타났고, 중비행친구인 경우에 .79로 나타났다. 비행친구를 측정함에 있어서 비행친구의 수보다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Haynie, 200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친구 중에서 비행친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비행친구를 측정하였다.

비행

비행은 K-CBCL(Achenbach & Edelbrock, 1983의 한국어판) 비행척도 등을 참고로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5)이 재구성한 청소년 비행척도 가운데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적 비행, 재산비행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성적 비행까지 포함하여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적비행이 강간이나 성폭력 등 특정한 성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대상자들의 90% 이상이 이러한 성적 비행의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편적인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비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은 12문항, 사회적 비행은 5문항, 재산비행은 4문항으로 각각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가 .89, .73, .70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7.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치를 구하였고,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을 이루는 측정변인들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를 구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넷째,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FILM(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고, 적합도 지수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로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선정하였다. 이들 적합도 지수를 선정한 이유는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표본의 크기에

영향 받지 않고 모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TLI와 CFI가 .09 이상인 경우에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어지고, RMSEA가 .06 미만인 경우에 양호한 적합도(resonable fit)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Sobel의 공식을 적용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각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비행 친구와 스릴 및 모험추구를 제외하고 자극추구성향과 비행은 .18~.64, 비행친구와 비행은 .31~.53, 자극추구성향과 비행친구 간에는 .22~.42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관계

먼저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비행친구와 비행의 측정변인들은 비정규분포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로그변환 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로그변환 후 모든 변인들의 값은 왜도와 첨도에서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2. 측정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이론변인들과 측정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적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2를 보면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 정상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모형을 포화모형으로 구성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론변인을 구성하는 각 측정변인들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고, 측

표 2.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스릴 및 모험추구	9.00	40.00	26.62	6.88	-.24	-.37
일탈적 경험 추구	6.00	30.00	14.90	5.96	.55	-.41
새로운 경험 추구	6.00	30.00	22.39	5.14	-.53	-.05
*경비행 친구	-2.77	3.32	.01	1.18	-.08	-.18
*중비행 친구	-3.56	3.22	-.62	1.19	.18	.18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2.48	3.93	2.80	.31	1.33	1.68
*사회적 비행	1.61	3.00	1.82	.28	1.65	2.83
*재산비행	1.39	2.83	1.59	.27	1.68	3.27

*는 로그변환 값

표 3.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스릴 및 모험추구	일탈적 경험추구	새로운 경험추구	경비행 친구	중비행 친구	일반지위 비행	사회적 비행
일탈적 경험추구	.32**						
새로운 경험추구	.33**	.62**					
경비행 친구	.24**	.42**	.22**				
중비행 친구	.09	.42**	.25**	.73**			
일반지위 비행	.21**	.64**	.41**	.53**	.44**		
사회적 비행	.25**	.57**	.32**	.40**	.29**	.72**	
재산 비행	.18**	.47**	.27**	.31**	.33**	.56**	.55**

** $p < .01$

표 4. 측정변인들의 요인적재량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i>t</i>
스릴 및 모험 추구	← 자극추구성향	1.00	.36		
새로운 경험추구	← 자극추구성향	1.37	.65	.22	6.16***
일탈적 경험추구	← 자극추구성향	2.32	.96	.37	6.32***
경비행 친구	← 비행친구	.99	.89	.12	8.35***
중비행 친구	← 비행친구	1.00	.86		
폭력 및 일반지위	← 비행	1.00	.89		
재산비행	← 비행	.64	.65	.05	12.93***
사회적 비행	← 비행	.87	.81	.05	16.92***

** $p < .01$ *** $p < .001$

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95, CFI가 .98, RMSEA가 .06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인들은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은 그림 2에, 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3. 매개효과 검증

매개모형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나타내 준다. 매개모형의 검증 절차로는 첫째,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해야 하고 둘째,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해야 하며, 셋째 간접효과가 유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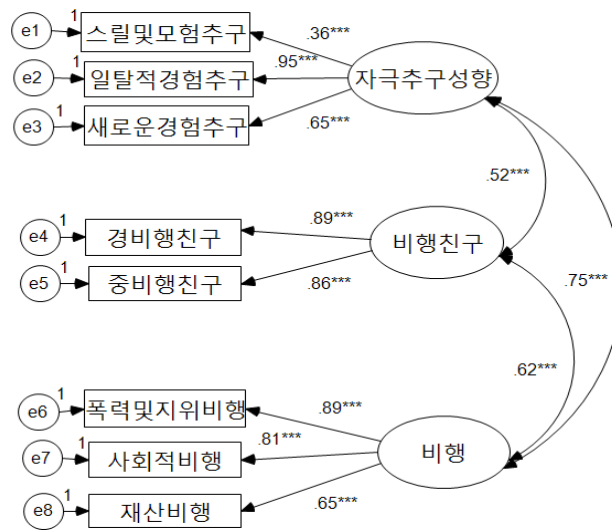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표준오차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적용한 Sobel(1982)의 공식¹⁾을 사용하였다. 이때, 자극추구가 비행친구로 향하는 경로의 추정치는 a 로 나타낼 수 있고, 비행친구가 종속변인인 비행에 이르는 추정치는 b 로 나타낼 수 있다. s_a 는 a 의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s_b 는 b 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부분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때 독립변인은 직접효과도 나타낼 것이라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와 검증에 위해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수로 향하는

표 5.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변수 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자극추구 → 비행 성향 친구	.225	.517	.049	4.60***
비행친구 → 비행	.082	.321	.019	4.28***
자극추구 → 비행 성향	.065	.580	.012	5.51***

*** $p < .001$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향하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간접효과 값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친구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였고($\beta = .225$, $p < .001$),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으로 향하는 경로도 유의하였다($\beta = .082$, $p < .001$). 또한 자극추구성향에서 청소년 비행으로 향하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1) Sobel(1982)의 공식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표 6.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부분매개 모형	41.18	17	.947	.975	.064

=.065, $p < .001$).

변인들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간접효과 값을 구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 값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ab=0.02$, $Z=3.14$ 로 나타나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가 비행친구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친구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친구를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 유의성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TLI가 .947, CFI가 .975, RMSEA가 .064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경쟁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함과 동시에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모형의 적합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 내재된 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χ^2 값 차이가 25.53, 자유도 차이가 1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두 모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표 7을 살펴보면,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보다 TLI

표 7.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경쟁모형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부분매개 모형	41.18	17	.947	.975	.064
완전매개 모형	92.14	18	.847	.923	.110

에서 .100만큼, CFI에서 .052만큼 적합도가 나빠졌고, RMSEA에서는 .046만큼 적합도가 나빠졌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가운데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던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를 통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비행과 자극추구성향 및 비행친구 간의 관계

청소년비행과 자극추구성향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극추구성향과 청소년비행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Donohew et al., 2000, 2001; Hoyle et al., 2000)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흡연(Zuckerman, Ball, & Black, 1990), 음주운전(Arnett, 1990), 범죄(Horvath & Zuckerman, 1993)나 도박행위(Zuckerman, 1974)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은 새로운 자극이나 보다 강한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활동이나 비행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자극추구성향이 다양한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오미경, 1997; 정현희, 정순화,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비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 새로움과 자극적인 경험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욕구를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비행과 경비행 친구, 중비행 친구의 상관관계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친구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Weerman, 2005)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비행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스릴 및 모험추구와 중비행 친구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성향 가운데서도 일탈적 경험 추구나 새로운 경험추구와는 달리,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스릴 및 모험추구성향은 타인에게 상해를 끼치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의 교류가 관련성이 있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즉, 자극추구성향은 전반적으로 중비행 친구와도 관련이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으로서 경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의 교류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Horvath & Zuckerman, 199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비행이 음주나 흡연 등 주로 자신에 국한된 문제인 반면 중비행은 구타나 도박 등 타인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자극추구성향 가운데 특히 스릴 및 모험추구성향은 상당히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2. 자극추구적 비행에서 비행친구의 매개역할

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비행에서 또래영향을 강조한 선행연구들(Weerman, 2005; Weerman & Smeenk, 2005)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자극추구적성향이 동기가 되는 비행에서 비행친구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비행친구를 통한 자극추구성향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극추구적인 비행은 신기함과 강렬함에 대한 욕구가 왕성한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시기적 속성을 반영하는 만큼, 동일한 시기적인 특성을 지닌 또래로서 비행친구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교류는 청소년이 자극추구적인 욕구를 비행으로 행동화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비행친구를 통해서 비행이 자신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비행에 대해 보다 허용적으로 또래규범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Agnew et al., 2008).

둘째, 비행친구를 통해 자극추구적인 비행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행친구로부터 또래압력이나 비행에 대한 동조성이 발휘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문제에서 또래압력 및 또래동조성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조운주, 정옥분, 2009; Steinberg, 2008).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친구들과의 교류는 비행에 대한 압력을 지각하게 할 수 있고,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행친구의 압력을 행동으로 채택하여 동조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어 청소년의 자극추구적인 비행에서 자극추구성향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제하여도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행동으로 대체가능한 특징을 갖는 자극추구성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극추구성향은 개인의 인성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범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자극추구성향은 자칫 문제행동과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질이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듯이, 자극추구성향이 문제행동과 직결되는 부정적인 요소라는 인식보다 적절한 활동의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

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낸다면 청소년의 발달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극추구가 동기가 되는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심화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통한 매개나 상호적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속성을 주지하여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위한 선택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비행친구 대신 새로운 취미나 모임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극추구성향이 아동기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자극추구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양육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속성으로서 자극추구성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비행친구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자극추구적인 비행의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해 일반지위 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변인으로 반영하여 보편적인 청소년의 비행을 평가하였지만, 성적 비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모형의 검증이 횡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인들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하며, 서울 소재의 남녀 고등학교 학생 394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

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극추구적 비행에서 비행친구의 매개역할이 검증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경비행 친구와 중비행 친구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매개역할이 어떠한지와 같은 보다 세분화된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비행친구의 성향에 따른 자극추구적 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화 (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박현수 (2009). 청소년 비행발전의 영향요인: 비행친구와 자아통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65-399.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8), 153-182.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오미경 (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109-123.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동원 (2004). 연구논문: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 가능성. *교정연구*, 24, 39-68.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8(2), 265-292.
- 이은주 (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141-171.
- 임은희, 서현숙 (2007). 성역할 정체감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사회통제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4(3), 53-78.
- 전덕희 (2002). 청소년의 우울과 감각추구성향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기원 (2007).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1), 385-398.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진경, 오경자, 문경주, 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 정현희, 정순화 (2004).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1-19.
- 조윤주, 정옥분 (2009).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 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 또래 동조성의 작용을 중심으로 -. *인간발달연구*, 16(3), 91-111.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gnew, R.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29, 47-72.
- Agnew, R., Matthews, S. K., Bucher, J., Welcher, A. R., & Keyes, C. (2008). Socioeconomic status, economic problem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40(2), 159-181.
- Arnett, J. (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541-546.
- Arnett, J. (1993).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1996). Sensation 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93-702.
- Baron, S. W. (2003).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4), 403-425.
- Block, J., Block, J. H., & Keyes, S. (1988). Longitudinally foretelling drug usage in adolescence: Early childhood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precursors. *Child Development*, 59, 336-35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paldi, D. M., Thomas J. D., Stoolmiller, M., & Yoerger, K. (2001). Aggression toward female partners by at-risk men: The contribution of male adolescent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61-73.
- Cauffman, E., Claus, E., Shulman, E., Banich, M., Graham, S., Woolard, J., & Steinberg, L. (2008). *Responding to reward versus punishment: How adolescents differ from adults in performance on the Iowa gambling task*.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Cernkovich, S. A., Giordano, P. C., & Rudolph, J. L. (2000). Race,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37(2), 131-38.
- Cohen, G. L., & Prinstein, M. J. (2006). Peer contagion of aggression and health risk behavior among adolescent mal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ffects on public conduct and privat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4), 967-983.
-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 Williams, R. A. (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ts: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6), 732-740.
- Dishion, T. J., Capaldi, D. M., & Yoerger, K. (1999). Late childhood antecedents to progressions in male adolescent substance use:

- An ecological analysis of risk and protec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 175-205.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2), 649-665.
- Donohew, L., Zimmerman, R., Cupp, P. S., Novak, S., & Abell, R. (2000). Sensation seeking, impulsive decision-making, and risky sex: implications for risk-taking and design of interven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7), 1079-1091.
- Elliott, D. S., David H. &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Goodyer, I. M., (1992).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E. S. Paykel (Ed.), *Handbook of affective disorders*(2nd ed., pp.585-600). New York: Guilford Press.
- Haynie, D. L. (2002). Friendship networks and delinquency: The relative nature of peer delinquenc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8(2), 99-134.
- Haynie, D. L., & Wayne, D. (2005). Reconsidering peers and delinquency: How do peers matter? *Social Forces*, 84(2), 1109-1130.
- Hennry, D. B., Tolan, P. H., & Gorman-Smith, D. (2001). Longitudinal family and peer group effects on violence and nonviolent delinquen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172-186.
- Horvath, P., & Zuckerman, M. (1993). Sensation seeking, risk appraisal, and risk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1-52.
- Hoyle, R. H., Fejfar, M. C., & Miller, J. D. (2000). Personality and sexual risk-taking: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68(1), 1203-1231.
- Le, T. N., Monfared, G., & Stockdale, G. D. (2005). The relationship of school, parent, and peer contextual factors with self-reported delinquency for Chinese, Cambodian, Laotian or Mien, and Vietnamese youth. *Crime & Delinquency*, 51(2), 192-219.
- O'Donnell, J., Hawkins, J. D., & Abbott, R. D.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29-537.
- Pie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4). Relationships of financial strain and psychosocial resources to alcohol use and abuse: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and drinking mot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291-308.
- Shader, M. (2001).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An over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3). San Francisco: Jossey-Bass.
- Steinberg, L., Albert, D., Cauffman, E. Banich, M., Graham, S., & Woolard, J. (2008). Age differences in sensation seeking and impulsivity

- as indexed by behavior and self-report: Evidence for a dual system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4(6), 1764 - 1778.
- Steinberg, L., & Monahan, K. C. (2007). Age differences in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531-1543.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 Thornberry, T. P., Alan J. Lizotte, Marvin D. Krohn, Margaret Farnworth, & Jang. s. j (1994).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32, 47-83.
- Warr, M. (2002). *Companions in crime: The social aspects of criminal conduc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r, M., &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Weerman, F. M. (2004). The changing role of delinquent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ssues, findings and puzzles. In J. N. Gerben, H. E. Bruinsma,, and Jan W. K. (Eds.), *Punishment, places and perpetrators: Development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Culompton, UK: Willin Publishing.
- Weerman, F. M., & Wilma H. S. (2005). Peer similarity in delinquency for different types of friends: A comparison suing two measurement methods. *Criminology*, 43(2), 499-52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Sage.
- White, H. R. Labouvie, E. W. & Bates, M. 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 197-211.
- Zuckerman, M. (1971). Dimensions of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1), 45 - 52.
- _____ (1974). The sensation seeking motive.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9). Sensation seeking and psychopathy. In R. D.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Approaches to research* (pp.165-186). London: Wiley.
- _____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 Ball, S., & Black, J. (1990). Influences of sensation seeking, gender, risk appraisal, and situational motivation on smoking. *Addiction Behavior*, 15, 209-220.

1 차원고접수 : 2010.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0.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0. 05. 26.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Juvenile Delinquency

Chung, Ock-Boon

Lim, Jung-Ha

Chung, Soon-Hwa

Cho, Yoon-Ju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N=394), and the data was then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means of SPSS 17.0 and AMOS 7.0.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sensation seeking influences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delinquent peers. In addition, sensation seeking has a direct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cy. Thus, these results prove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This study suggests that delinquent pe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sensation seeking and supports the interactional theory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peers and juvenile delinquency.

Key words : delinquent peers, sensation seeking, juvenile delinquency, mediation effect